https://doi.org/10.5392/JKCA.2018.18.01.370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Programs by Region Characteristics

주찬희, 김옥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han-Hee Joo(doden1771@naver.com), Ock-Nyu Kim(doris@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전국 노인복지관 34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304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3개 유형을 도출하여 실시 중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기본사업은 기능회복사업, 상담사업, 정서지원사업이었고 선택사업 중에서는 지역복지연계사업이었다. 둘째, 노인복지관의 사업별 세부프로그램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사업에서는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실, 예비노인 프로그램, 물리치료, 양·한방요법,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인일반상담,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으로 나타났다. 선택사업의 경우 이·미용서비스, 취업지원교육, 경제교육, 은퇴준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세대통합프로그램, 이동복지사업, 지역협력사업이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는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인복지관이 지역특성과 지역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 중심어 : | 노인복지관 | 지역특성 | 프로그램 | 노인복지관 발전방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and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in the future.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44 elderly welfare centers nationwide and 304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three types were deriv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jects which showed difference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were the functional recovery program, counseling, emotional support, and community welfare program.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welfare centers had different programs according to their area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derly welfare centers had different programs, group programs, self-help groups, beauty services, employment support education, economic education,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home helper service, generation integration program, mobile welfare business and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utonomy so that the elderly welfare center can operate the program.

■ keyword : | Elderly Welfare Centers | Local Characteristics | Programs | Development Directions |

접수일자 : 2017년 10월 10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0월 27일
교신저자 : 김옥녀, e-mail : doris@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은 노인복지관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1]. 전국의 노인복지관은 350개소로(2016년 기준)[2], 노인복지관 개설 이래 꾸준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비이용 노인들에 비해 고독감이 낮고[3],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보면[4-6],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은 8.9%로 저조하고, 향후 이용희망률도 19.5%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급변하는 고령사회의 환경에 맞게 질적 향상의 도모를 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수한 인적 자본의 특성을 지닌 베이비 붐 세대[8]가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새롭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의 변화하는 복지욕구와 생활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성을 반영한[1]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노인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9]. 즉, 지역별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이 상이하기 때문에[10] 지역사회 노인들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 이를테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대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심리,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4], 이를 위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대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운영기준으로 인해 여느 복지관의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규범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2]. 더욱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서비스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유사한 서비스 중복 등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9]. 서울시의 경우, 50+재단, 강남시니어플라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 내 문화센터 등에서도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환경과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관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는 한 기관의 역할 변화를 위해 수립한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수행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다[13][14].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을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15]. 그러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이고,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황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노인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

노인복지관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로,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히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9][13]. 노인복지관은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기에는 주로 노인의 문화·여가 및 교육 기능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노인복지관 중점 사업 추이를 살펴보면, 그 사업 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노인복지관의 노인종합복지기능이 강조되면서[15] 노인의 건강, 문화·여가, 노후, 일자리,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1][9]. 이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는 사회전반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7][18].

현재 노인복지관의 법적근거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여가복지 외에도 상담, 사회참여, 지역사회보호 등 노년 생활 전반에 걸친 욕구와 관련된 기능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사업과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에 맞게 추진 가능한 선택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본사업의 세부내용은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사업, 치매예방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이다. 선택사업의 세부내용은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사업 제외), 주거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가족기능 및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1].

또한 2013년에는 노인복지관 운영방향이 예방, 보호, 통합 3대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됨에 따라 노인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취약노인보호 연계망 구축사업 등 노인문제의 예방과 통합적 접근, 개별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13].

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노인복지관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이용 실태나 만족도,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룬다. 대다수의 연구결과들은 노인복지관 이용은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17], 특히 노인의 사회·정서적 고독감의 정도가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는데, 교육, 생활체육, 여가 및 복지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고독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결과적 만족뿐만 아니라 참여 과정에 있어서도 노인들과의 만남과 대화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는 84.4%로, 주 이용이유는 여가프로그램 이용으로 5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을 노인의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75~79세 연령이 가장 활발하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향후 이용희망률은 65~69세 연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복지관의 이용률도 높았고, 향후 이용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내부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도 좋아 여가문화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21].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프로그램 분석과 개발이 필요하지만, 단순하고 일시적인 흥미나 오락위주의 프로그램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18]. 이러한 점에

서 지역노인의 이용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17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347개소의 노인복지관에 일괄 배포하였고, 총 304부(87.6%)를 회수하여,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는 전화응답을 통해 답변을 보충하여, 총 304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 3달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제공현황, 각 사업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현황 등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6)에 제시된 기본사업 8개(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인 기능회복지원사업과 치매예방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와 선택사업 9개(건강생활증진사업, 급식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가족기능지원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 지역사회복지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총 17개 사업의 실시여부와 각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의 수행여부도 조사하였다. 각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은 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지역적 특성의 구분은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도시유형 구분에 따라, 노인복지관이 광역시(특별시) 및 구에 위치한 경우 대도시, 시·동에 위치한 경우(광역시 및 군 소재지)에는 중소도시, 군 및 읍·면에 위치한 경우(시에 속하면서 읍·면 소재지 포함)를 농산어촌으로 구분[22]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 22.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분석, 교차분석, 카이검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기관의 일반적 현황

노인복지관의 운영형태는 직영이 76개소(25%), 위탁이 228개소(75%)였다. 직영의 구성은 지자체 운영이 31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영리법인 26개소(34.2%), 시설관리공단 12개소(15.8%)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영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153개소(6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단법인 27(11.8%)개소, 대한노인회 16개소(7.0%), 학교법인 13개소(5.7%), 사단법인 12개소(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대도시형 146개소(48.0%), 중소도시형 94개소(30.9%), 농산어촌형 64개소(21.1%)로 나타났다.

표 1. 응답기관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개소, %)

구분		N(%)
운영형태 및 주체	직영	76(25.0)
	- 지자체	31(40.8)
	- 시설관리공단	12(15.8)
	- 비영리법인	26(34.2)
	- 기타	7(9.2)
	위탁	228(75.0)
	- 사회복지법인	153(67.1)
	- 재단법인	27(11.8)
	- 대한노인회	16(7.0)
	- 사단법인	12(5.3)
	- 기타	20(8.7)
도시유형	대도시	146(48.0)
	중소도시	94(30.9)
	농산어촌	64(21.1)

2.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사업실시 현황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 실시여부를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지침에 따라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2].

기본 사업 중 가장 높은 실시 비율을 차지한 사업은 취미여가지원사업으로 94.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평생교육지원 사업(93.8%), 상담사업(84.5%), 기능회복지원사업(7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서비스는 24.0%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 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사업은 정서지원사업으로, 대도시 노인복지관이 65.1%, 농산어촌 노인복지관은 42.2%로 나타나, 두 지역 간 22.9%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 사업은 기능회복지원사업으로, 중소도시 노인복지관의 경우 78.7%, 농산어촌 노인복지관은 60.9%로 두 지역 간의 약 18%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업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역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기능회복사업(p=.039), 상담사업(p=.047), 정서지원사업(p=.005)으로 나타났다.

선택산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으로 88.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급식사업 83.2%, 지역자원개발사업 79.6%,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이 7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인 사업은 가족기능사업(23.4%)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통합사업(29.9%), 주거지원사업(36.8%)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족기능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노인복지관의 경우 10% 대의 실시율에 머물렀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 가구가 많고, 자녀와 동거하는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자원개발사업은 대도시의 경우 82.2%의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71.9%의 시설에서 실시하여 약 10%의 차이를 보였고, 가족통합지원사업은 대도시와 농산어촌 간 약 12%의 차를 보였다. 노인권익증진사업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 노인복지관보다 농산어촌의 노인복지관에서 높은 비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업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선택 사업에서는 지역복지연계사업(p=.023)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단위: 개소, %)

기본사업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χ^2
평생교육	136(93.2)	88(93.6)	61(95.3)	285(93.8)	.359
취미여가	137(93.8)	88(93.6)	61(95.3)	286(94.1)	.226
기능회복	109(74.7)	74(78.7)	39(60.9)	222(73.0)	6.494*
요양	36(24.7)	28(29.8)	9(14.1)	73(24.0)	5.224
상담	129(88.4)	80(85.1)	48(75.0)	257(84.5)	6.106*
사회참여	103(70.5)	72(76.6)	48(75.0)	223(73.4)	1.182
위기독거	99(67.8)	62(66.0)	41(64.1)	202(66.4)	.295
정서지원	95(65.1)	60(63.8)	27(42.2)	182(59.9)	10.584**
선택사업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χ^2
건강증진	131(89.7)	82(87.2)	56(87.5)	269(88.5)	.426
급식	121(82.9)	76(80.9)	56(87.5)	253(83.2)	1.230
주거지원	50(34.2)	37(39.4)	25(39.1)	112(36.8)	.815
고용	105(71.9)	68(72.3)	43(67.2)	216(71.1)	.594
가족기능	38(26.0)	22(23.4)	11(17.2)	71(23.4)	1.943
가족통합	47(32.2)	31(33.0)	13(20.3)	91(29.9)	3.595
지역자원	120(82.2)	76(80.9)	46(71.9)	242(79.6)	3.047
지역복지	111(76.0)	62(66.0)	37(57.8)	210(69.1)	7.532*
노인권익	70(47.9)	48(51.1)	35(54.7)	153(50.3)	.839

*p<0.05, **p<0.01, ***p<0.001

3.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사업별 세부 내용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는 노인복지관의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평생교육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예비노인은퇴준비프로그램 등이고 취미여가지원사업은 예능활동(음악, 미술 등), 문화 활동(연극, 사진 등), 취미활동(종이접기 등), 체육활동(탁구, 당구 등), 동아리활동 등이다. 이러한 사업별 세부내용이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본사업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표 3].

평생교육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화교실이 84.9%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한글교실 77.3%. 외국어교실 76.6%의 순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평생교육지원사업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세부내용은 예비노인프로그램으로 9.5%의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의 노인복지관 중 15.1%가 예비노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고,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5.3%, 3.1%의 비율을 보였다. 평생교육지원 사업 중 지역특성별 큰 차이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외국어교실과 인문학교실, 교양교실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교실의 경우, 대도시 노인복지관 중 84.2%가 실시하고 있었지만, 농산어촌 노인복지관은 53.1%로, 두 지역 간 차가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교실과 교양교실의 실시비율도 대도시와 농산어촌 간 25%의 차를 보였다. 지역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세부사업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외국어교실(p=.000), 교양교실(p=.004), 인문학교실(p=.002), 예비노인프로그램(p=.006)으로 나타났다.

취미여가지원사업 중 예능활동과 체육활동은 지역에 상관없이 80% 이상의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사업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능회복사업의 세부내용에서는 물리치료가 64.8%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다음으로 양·한방요법 42.1%, 운동재활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와 ADL훈련은 각각 5.6%, 6.6%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 간 차이를 크게 보인 세부사업은 물리치료로, 대도시의 경우 69.2%의 노인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은 48.4%로 두 지역 간 약 20%의 차이를 보였고, 양·한방요법은 중소도시의 경우 52.1%, 농산어촌의 경우 20.3%로 두 지역 간 30%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지역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물리치료(p=.009)와 양·한방요법(p=.000)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서비스사업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는 21.4%의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은 12.8%의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중소도시의 노인복지관(18.1%)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농산어촌의 노인복지관은 이보다 15% 낮은 3.1%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매예방프로그램(p=.020)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업 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노인일반상담(이용 상담, 접수 상담 등)으로 82.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경제, 법률 상담 등)이 64.5%, 심리상담 47.0%, 치매상담 3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사업은 심리상담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57.4%의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29.7%로 나타나, 두 지역 간 27.7%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지역 간 차이를 보인 사업은 치매상담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42.6%, 농산어촌의 경우 25.0%로 나타나, 두 지역 간 17.6%의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업 중 지역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업은 노인일반상담(p=.013), 심리상담(p=.003)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지원사업 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 66.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역봉사활동 38.2%, 동아리·클럽활동지원 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안전봉사는 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참여지원사업의 대다수의 세부사업은 농산어촌의 노인복지관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노인복지관보다 높은 실시비율을 보였다. 지역봉사활동이나 동아리·클럽활동지원, 교통편의서비스는 대·중소도시의 노인복지관보다 농산어촌 노인복지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사업 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사례관리사업(46.7%)이였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노인복지관이 52.7%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의 노인복지관은 39.1%로, 세 지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를 보이는 세부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생활지원사업은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이이 42.4%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 34.9%, 죽음준비프로그램 24.3%, 자조모임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프로그램은 대도시와 농산어촌 노인복지관의 실시비율의 차가 23.2%로 크게 나타났고, 자조모임도 대도시와 농산어촌 간 프로

그램 실시비율이 16.8%를 보였다. 지역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프로그램((p=.004)과 자조모임(p=.007)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별 기본사업 세부내용

(단위: 개소, (%))

기본사업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χ^2
평생교육					
-한글	112(76.7)	77(81.9)	46(71.9)	235(77.3)	2.243
-외국어	123(84.2)	76(80.9)	34(53.1)	233(76.6)	25.420***
-교양	93(63.7)	65(69.1)	28(43.8)	186(61.2)	11.091**
-정보화	122(83.6)	82(87.2)	54(84.4)	258(84.9)	.616
-인문학	64(43.8)	40(42.6)	12(18.8)	116(38.2)	12.980**
-예비노인	22(15.1)	5(5.3)	2(3.1)	29(9.5)	10.164**
취미여가					
-예능	127(87.0)	82(87.2)	56(87.5)	265(87.2)	.011
-문화	82(56.2)	52(55.3)	28(43.8)	162(53.3)	2.980
-취미	92(63.0)	55(58.5)	33(51.6)	180(59.2)	2.443
-체육	121(82.9)	78(83.0)	52(81.3)	251(82.6)	.098
-동아리	93(63.7)	59(62.8)	34(53.1)	186(61.2)	2.238
기능회복					
-물리치료	101(69.2)	65(69.1)	31(48.4)	197(64.8)	9.519**
-양 · 한방	66(45.2)	49(52.1)	13(20.3)	128(42.1)	16.918***
-작업치료	11(7.5)	3(3.2)	3(4.7)	17(5.6)	2.168
-운동재활	50(34.2)	27(28.7)	16(25.0)	93(30.6)	2.015
-ADL	14(9.6)	3(3.2)	3(4.7)	20(6.6)	4.280
요양					
-치매예방	20(13.7)	17(18.1)	2(3.1)	39(12.8)	7.810*
-주야간	32(21.9)	25(26.6)	8(12.5)	65(21.4)	4.549
상담					
-노인일반	129(88.4)	76(80.9)	46(71.9)	251(82.6)	8.674*
-전문상담	90(61.6)	67(71.3)	39(60.9)	196(64.5)	2.759
-심리상담	70(47.9)	54(57.4)	19(29.7)	143(47.0)	11.870**
-치매상담	53(36.3)	40(42.6)	16(25.0)	109(35.9)	5.125
-노인학대	29(19.9)	22(23.4)	16(25.0)	67(22.0)	.831
사회참여					
-자원봉사	91(62.3)	66(70.2)	44(68.8)	201(66.1)	1.837
-지역봉사	59(39.7)	31(33.0)	27(42.2)	116(38.2)	1.661
-교통봉사	10(6.8)	5(5.3)	4(6.3)	19(6.3)	.229
-동아리	42(28.8)	23(24.5)	24(37.5)	89(29.3)	3.158
-교통편의	14(9.6)	13(13.8)	11(17.2)	38(12.5)	2.569
위기독거					
-자립지원	46(31.5)	36(38.3)	17(26.6)	99(32.6)	2.531
-기관연계	52(35.6)	30(31.9)	16(25.0)	98(32.2)	2.302
-사례관리	77(52.7)	40(42.6)	25(39.1)	142(46.7)	4.289
정서생활					
-우울자살	66(45.2)	43(45.7)	20(31.3)	129(42.4)	4.158
-죽음준비	41(28.1)	20(21.3)	13(20.3)	74(24.3)	2.153
-집단	59(40.4)	36(38.3)	11(17.2)	106(34.9)	11.272**
-자조모임	29(19.9)	16(17.0)	2(3.1)	47(15.5)	9.791**

*p<0.05, **p<0.01, ***p<0.001

[표 4]는 선택사업의 세부내용을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건강증진사업 중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교육으로 62.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건강교실 54.6%, 건강상담 53.9%, 이·미용서비스 5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용서비스는 대도시 노인복지관과 농산어촌 노인복지관 간 15%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지역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p=.048)도 있는 사업으로 드러났다.

급식지원사업 중 경로식당(중식서비스)은 세 지역 모두 80%가 넘게 실시하고 있었지만 푸드뱅크사업은 12.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급식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내용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32.6%)이 주택수리사업(13.8%)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수리사업은 중소도시 노인복지관(17.0%)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노인복지관에서는 11.0%로 가장 낮은 실시비율을 보였다.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내용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세부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70.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경제교육사업으로 24.0%의 비율을 보였다. 경제교육사업은 대도시 노인복지관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농산어촌 노인복지관 20.3%, 중소도시 노인복지관 16.0%로 나타났다. 고령자 취업지원사업은 16.1%의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였고, 대도시의 경우 24.7%의 노인복지관이, 농산어촌의 3.1%만이 실시하고 있어, 대도시와 농산어촌 간 20%를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은퇴준비사업은 8.9%의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 노인복지관의 경우 13.7%가 은퇴준비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각각 4.3%, 4.7%의 비율을 보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산어촌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경우, 예비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따른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간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 취업지원사업(p=.000)과 경제교육(p=.023), 은퇴준비(p=.018)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기능사업의 세부내용 중 노인돌봄서비스가 14.5%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가정봉사원파견

9.5%, 방문간호서비스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p=.010)으로 대도시의 경우 14.4%의 노인복지관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1.6%의 노인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통합사업은 세대통합사업이 26.0%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가족관계프로그램 6.3%, 가족상담 5.3%로 나타났다. 세대통합사업은 지역특성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업으로(p=.007), 대도시 노인복지관의 31.5%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농산어촌 노인복지관은 10.9%가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세대를 접할 기회가 많은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대도시 보다 다양한 세대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자원개발사업은 자원봉사발굴·관리가 77.0%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세부사업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후원자개발이 67.8%,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이 37.2%로 나타났다.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세부사업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복지연계사업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협력사업으로 55.9%, 다음으로 지역복지기관 연계 46.7%, 이동복지사업 14.1%로 나타났다. 이동복지사업은 대도시의 경우 8.2%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농산어촌의 경우 23.4%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접근성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지역협력사업은 대도시의 경우 6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37.5%로 나타나, 대도시와 농산어촌간 30%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동복지사업(p=.009)과 지역협력사업(p=.000)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권익증진사업에서는 노인인식개선사업이 29.9%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드러났고, 다음으로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이 29.6%, 노인인권옹호 27.3%, 편의시설 설치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인식개선사업은 중소도시의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은 대도시(33.6%)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농산어촌(28.1%), 중소도시(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권익증진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별 선택사업 세부내용

(단위: 개소, (%))

선택사업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χ^2
건강증진					
–건강교육	97(66.4)	58(61.7)	35(54.7)	190(62.5)	2.658
–건강상담	80(54.8)	50(53.2)	34(53.1)	164(53.9)	.081
–건강교실	85(58.2)	46(48.9)	35(54.7)	166(54.6)	1.988
–이 · 미용	88(60.3)	44(46.8)	29(45.3)	161(53.0)	6.065*
급식지원					
–경로식당	121(82.9)	76(80.9)	56(87.5)	253(83.2)	1.230
–밑반찬	81(55.5)	52(55.3)	34(53.1)	167(54.9)	.108
–푸드뱅크	21(14.4)	8(8.5)	8(12.5)	37(12.2)	1.853
주거지원					
–주택수리	16(11.0)	16(17.0)	10(15.6)	42(13.8)	1.988
–환경개선	49(33.6)	30(31.9)	20(31.3)	99(32.6)	.135
고용소득					.488
–사회활동	102(69.9)	68(72.3)	43(67.2)	213(70.1)	17.222**
–취업지원	36(24.7)	11(11.7)	2(3.1)	49(16.1)	*
–경제교육	45(30.8)	15(16.0)	13(20.3)	73(24.0)	7.533*
–은퇴준비	20(13.7)	4(4.3)	3(4.7)	27(8.9)	8.063*
가족기능					
–봉사원파견	21(14.4)	7(7.4)	1(1.6)	29(9.5)	9.166*
–방문간호	14(9.6)	6(6.4)	1(1.6)	21(6.9)	4.516
–노인돌봄	21(14.4)	14(14.9)	9(14.1)	44(14.5)	.023
가족통합					
–가족상담	6(4.1)	6(6.4)	4(6.3)	16(5.3)	.751
–가족관계	8(5.5)	5(5.3)	6(9.4)	19(6.3)	1.354
–가족캠프	1(0.7)	2(2.1)	0(0.0)	3(1.0)	2.026
–세대통합	46(31.5)	26(27.7)	7(10.9)	79(26.0)	9.986*
지역자원				234(77.0)	
–자원봉사관리	117(80.1)	73(77.7)	44(68.8)	206(67.8	3.291
–후원개발	106(72.6)	58(61.7)	42(65.6)	)	3.280
–외부사업	51(34.9)	39(41.5)	23(35.9)	113(37.2)	1.106
지역복지					1.622
–기관연계	73(50.0)	43(45.7)	26(40.6)	142(46.7)	9.413**
–이동복지	12(8.2)	16(17.0)	15(23.4)	43(14.1)	18.517**
–지역협력	99(67.8)	47(50.0)	24(37.5)	170(55.9)	*
노인권익					
–인권옹호	38(26.0)	29(30.9)	16(25.0)	83(27.3)	.887
–인식개선	40(27.4)	34(36.2)	17(26.6)	91(29.9)	2.538
–편의시설	25(17.1)	14(14.9)	11(17.2)	50(16.4)	.239
–소비자피해	49(33.6)	23(24.5)	18(28.1)	90(29.6)	2.354

*p<0.05, **p<0.01, ***p<0.001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17개의 사업과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구분한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8개의 기본사업과 9개의 선택사업 실시여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기본사업은 취미여가지원사업(94.1%)과 평생교육지원사업(93.8%), 상담사업(84.5%)의 순으로 나타났고, 선택사업은 건강증진사업(88.5%), 급식사업(83.2%), 지역자원개발사업(7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본사업 중 유의미한 사업은 기능회복사업(p=.039), 상담사업(p=.047), 정서지원사업(p=.005)이었고, 선택사업에서는 지역복지연계사업(p=.023)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특성에 따라 17개 사업별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사업의 세부내용 중에서는 외국어교실(p=.000), 교양교실(p=.004), 인문학교실(p=.002), 예비노인프로그램(p=.006)이 유의미한 세부사업으로 드러났고, 기능회복사업 중에서는 물리치료(p=.009), 양·한방요법(p=.000), 요양서비스 중에서는 치매예방프로그램(p=.023), 상담사업 중에서는 노인일반상담(p=.013), 심리상담(p=.003), 정서생활 중에서는 집단프로그램(p=.004), 자조모임(p=.007)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택사업 중에서는 이·미용서비스(p=.048), 취업지원사업(p=.000), 경제교육(p=.023), 은퇴준비프로그램(p=.018), 가정봉사원파견사업(p=.010), 세대통합프로그램(p=.007), 이동복지(p=.009), 지역협력사업(p=.000)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역의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은 다른 선행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찾을 수 없었다[9][22].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기본 운영방향은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등을 견지하여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립하고, 지역사회노인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1]. 즉 지역의 특성, 예컨대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고 그 지역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 지역의 특색도 상이하고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 기관인 노인복지관이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필요하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특성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지역특성에 따라 유추할 수 있는 사업도 나타났다. 예컨대 선택사업의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은 대도시의 경우 67.8%의 노인복지관이 실시하고 있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 37.5%의 실시율을 보였다. 이는 경로행사나 나들이 등에 대해 대도시의 노인들이 농산어촌의 노인들보다 적극적인[24] 이유에서일 것이다. 또한 이동복지사업의 경우, 시설에 대한 접근성[25] 때문에 농산어촌의 노인복지관의 실시율이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지역의 특색과 지역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비로소 지역기반의 노인복지관의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관의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 받는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경우 대도시·중소도시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복지관의 운영기준은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 어렵다. 농산어촌의 경우 대도시보다 후기고령자가 많고, 고령인구밀도가 높은 특성 등을 갖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21]. 연구결과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실시율의 차이를 보인 것은 운영기준도 지역특성에 따라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운영지침의 변경 혹은 새로운 기준마련은 평가기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가치실현과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관의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만이 아닌 지역특성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구분하여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의 실시여부, 나아가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관 사업 개선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단, 본 연구가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실시여부 등 양적 분석에 국한되었고,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지역사회 내 다른 노인복지관련 기관과의 관계, 역할, 프로그램 등을 포괄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집필하였습니다.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

[2]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2017.

[3] 허준수, “노인들의 고독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과 비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3호, pp.101-131, 2011.

[4] 나항진, “농촌 소재 노인복지관 이용정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계속연구, 제5권, 제1호, pp.113-134, 2014.

[5] 윤성욱, 전옥, “실버고객의 복지관 프로그램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7권, 제3호, pp.63-84, 2014.

[6] 이갑숙,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

[8] 원영희, 최혜지, “핵심사업을 통해 본 노인복지관 역할의 중심성과 고유성,”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제12권, 제2호, pp.105-136, 2015.

[9] 원영희, 안정선, “노인복지관 서비스 욕구 기반의 사업조정 방안연구: 서울시 A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5호, pp.83-108, 2014.

[10] 서울시복지재단, *2016년 노인실태조사-서울시 노인복지이슈 중심-*, 서울시복지재단, 2016.

[11] 이송현, 어성신, 환연숙,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노인복지관에 대한 만족도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제15권, 제3호, pp.171-186, 2016.

[12] 정은하,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유형화에 관한 시론적 연구-혁신의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2호, pp.123-153, 2011.

[13] 정순둘, 선하나, 김고은,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3권, 제3호, pp.177-196, 2011.

[14] 엄기욱, “100세 시대 차세대 노인복지관 운영 모형(안),” 고령사회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종합대책토론회, pp.63-113, 2013.

[15] 박희원, *노인종합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10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6] 박영란, “노인복지서비스 재편 및 노인복지관 종합대책(안),” 고령사회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종합대책토론회, pp.3-42, 2013.

[17] 김현정, “노인복지관 기능성 제고를 위한 이용노인과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화 연구 : Q방법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6호, pp.257-286, 2014.

[18] 윤귀현,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가 고독감과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운동재활

학회, 제5권, 제1호, pp.9-20, 2009.
[19] 고정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치료 집단 상담," 한국가족치료학회, 제24권, 제1호, pp.27-46, 2016.
[20] 정경희, "노인복지 서비스 재편 및 노인복지관 종합대책(안)-토론문-," 고령사회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종합대책토론회, pp.47-51, 2013.
[21]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2016.
[22] 지에릭승훈, "경기도 노인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평가: 서비스 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6권, 제3권, pp.847-867, 2017.
[23] 사회보장정보원,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사회보장정보원, 2017.
[24] 김희년, 정미숙,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들의 여가활용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6호, pp.263-285, 2004.
[25] 김정현,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 추이(2008~2015년),"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pp.91-108, 2016.

저 자 소 개

주 찬 희(Chan-Hee Joo) 정회원

- 2005년 2월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9년 3월 : Japan Lutheran College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복지

김 옥 녀(Ock-Nyu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7년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여성복지, 시설평가